



불서읽기 캠페인

# ‘譯經’으로 보는 중국불교



중국 불경의 탄생  
이종철 지음  
창비 펴냄 | 1만7000원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완전한 대화'는 가능한가?

인도 대승불교의 중심개념인 '공(空, śūnyā)'과 중국의 '무(無)'가 대화를 나눈다. 불교 수용 당시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문화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작가는 이러한 중국이 인도문화를 수용하여 변용화 하는 거대담론의 통로를 불경의 역경사로 열어 보인다.

인도불전과 한역 사이의 만남을 돌이켜 보면 그 과정에 중국의 역경사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이 번역 작업으로 융화되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 중국의 거대한 역경사를 거시적으로 소묘한다. 역경사의 거봉으로 꼽히는 구마라집 이전의 고역기(古譯期), 구마라집

이후 현장 이전의 구역기(舊譯期), 현장 이후의 신역기(新譯期)의 세 번역시기를 사정권에 두었다.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한역불전 역경가들의 생애와 번역의 과정을 사료에 근거해서 복원한다. 더불어 그들의 번역이 중국에 끼친 사상사적 문화사적 의의를 조망한다.

역경사의 관점으로 인도불전의 한역이 시작된 시점은 기원후 2세기 중반 경, 8세기 밀교의 도입을 하한선으로 삼아 한역불전의 시대는 끝났다. 후한에서 송대에 이르는 거의 1,000년의 한역사를 언어학적 역사적 이해의 기초로 삼는다. 인도불교로 대표되는 인도문화와 중국 문화로의 화해와 원융의 과정을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한다. 더불어 중국



의 역경사에서 독자가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을 밝힌다. 문화적 요소가 강한 구마라집식의 대승경전과 철학적 요소가 강한 현장식 논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글 역경 작업에 있어서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문헌학을 토대로 불교철학을 연구해 온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불교철학) 교수는 철학과 언어학의 영역을 넘나들어왔다. 중국문화가 인도불교를 원형적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경의 과정은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불안정한 이해에서 완전한 상호이해로 향하는 도정은 인도불전의 중국적 변용과정으로 현실화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스승 김태준 · 소재영 엮음 | 논형 펴냄 | 1만4000원  
민족국학의 스승 27인의 만남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마음의 아버지, 사회의 등불로 받들어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모아 스승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에게 사제의 정(情)을 일깨운다.  
“스승의 도는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꿰뚫어 볼수록 더욱 튼튼하다. 바라볼 때 앞에 있다니, 홀연히 뒤에 있다더라.” 높고 튼튼하여 사방으로 넉넉한 스승의 도와 만난다. 스승의 이야기에 담긴 민족의 정신과 국학의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울린다.



성공 스펜서 존슨 · 래리 윌슨 지음 | 안진환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 | 1만원  
“당신은 행복하게 성공하는 길을 알고 있나요?”  
〈행복〉〈멘토〉에 이어 나온 인생의 지혜 3부작의 완결 편이다. 글로벌 빌리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이 인생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일깨운다. 삶의 목표와 열정을 잃은 이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행복한 성공을 꿈꾼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작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니’라는 주인공의 성장 여정을 통해 보여준다. 평생의 힘이 될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는 멘토와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행복하게 성공하는 비결을 깨달아 간다.



선관책진(禪關策進) 운서주경 지음 | 광덕역주 | 불광출판사 펴냄 | 2만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닭에게도?”  
중국 명나라 말 항주 운서산 일대에 총림을 창설하여 선종을 펼친 운서주경 스님의 조사법어를 모았다. 황벽 스님 이하 역대 조사들의 39법문, 조사 스님들의 정진담 24조 등 옛 조사 60여 분의 발심(發心) · 수도(修道) · 오도기연(悟道機緣) 및 설법을 수록한 선입문서다. 〈선관책진〉은 예부터 제방 총림에서 선가의 입문제일서(入門第一書)로 널리 알려져 왔다. 참선의 실제 길잡이로 1960년 범어사 선원에서 현토로 처음 발행된 것을 다시 손질하여 재출간한 역주를 담았다.

중국문화가 인도불교를 원형적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경의 과정은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 만화로 재구성한 아함경



마음밭을 일구는 사람  
김정열 글·그림  
솔바람 펴냄 | 6000원

“아난다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도록 하여라.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가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을 것이니 용기를 갖고 나아갈지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난다 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밭을 일구는 사람〉이다. 진리의 등불을 밝힐 줄 아는 삶의 참다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셨던 말씀을 정리한 〈아함경〉의 내용 중에서 열아홉 편만을 뽑아 엮었다. 마음이 지닌 근원적인 갈등은 갖 삶에서 깊어 올린 청량한 물 한 잔만이 달랠 수 있는 법. 부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 현대인들이 지닌 마음의 갈등을 해소한다. 만화의 형식을 빌려 쉽고 재밌게 구성하였다.

작가 김정열은 월간 〈설법〉에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를 연재해왔다.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그리고 〈만화 백유경〉 등이 있다.

가연숙 기자

## 고려인의 불심을 동화로



오천 만자의 기적,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  
윤영수 글·정소영 그림  
산솔수북 펴냄 | 6800원

“바로 저것 이나라! 한 글자를 새기고 부처님께 한 번 절을 올리는 저 애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마침내 대장경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천 만자의 기적,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속에 담긴 고려인의 불심(佛心)을 동화로 선보인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의 소용돌이를 이겨낸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팔만대장

경 경판에 담긴 역사 정신을 문화유적과 함께 소개한다. TV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작가들이 만든 한국사 시리즈 중 스물다섯 번째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하는 ‘성주’는 주말 아침 부모님과 함께 해인사로 향한다. 모든 것이 불만인 성주에게 팔만대장경을 새긴 각수(刻手)가 나타나 750년의 역사를 거슬러 불공의 침략을 받고 있는 고려로 간다. 한 글자를 새기고 한 번 절을 올리는 각수 ‘충서’와 만난 성주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염원하며 완성해낸 대장경에 마음을 새긴다.

가연숙 기자

## 세계 종교대표자들의 대화



세계종교올림픽  
사피크 케사브지 지음 김경곤 옮김  
공리 펴냄 | 1만1000원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것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과 같다.”

종교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다양한 세계의 종교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대화의 장을 연다. 어느 종교가 가장 훌륭한가, 누구의 신이 가장 지혜로운가, 세계 5대 종교와 무신론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승부를 낸다. ‘종교 올림픽’이라는 참신한 발상으로 추리소설 기법을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미 10여 년 전에 출간되어 독일·이탈리아·그리스·터키·러시아·일본·중국 등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이래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체계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철학이기는 하지만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리 체계를 넘어선 해탈의 수단입니다. 깨달음과 존재와 사물들의 진정한 본질의 인식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임을 내면의 침묵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익숙한 청중들에게 승부수를 던진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절을 기처가 잘 하는 법	청건	붓다의 마음
6	아발로키테스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10	내 인연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대화	장승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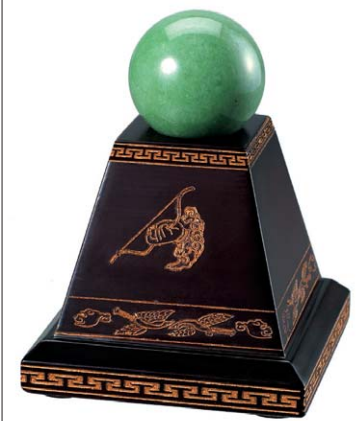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집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가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변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클럽,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인형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영험의 구슬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의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도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명령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에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 은나노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